

서건창 MVP 되기까지

2008년 광주일고 졸업

2008년 LG 신고선수 입단

방출 뒤 군복무

2011년 넥센 신고선수 입단

2012년 신인왕

2014 타율·득점·안타 1위 MVP

야소야死 인생역전



숫자로 본 서건창 33 프로야구 33번째 MVP 3 교타자 수상자 수 2 류현진 이어 신인왕 출신 MVP 4 받은 트로피 수 (타율·득점·안타·MVP) 77 MVP 득표 수 201 역대 최고 시즌 200 안타

2014 프로야구 MVP 서건창

201 안타로 '전설' 이종범 넘고 135 득점으로 이승엽 아성 깨

타율·득점·안타 1위...99표중 77표 얻어 MVP까지 석권

신인왕은 NC 박민우

전설을 넘은 광주일고 출신의 내야수 서건창(넥센)이 MVP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서건창이 18일 서울 덕에이 호텔에서 열린 최우수선수(MVP)·최우수 신인선수 및 부문별 시상식에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서건창은 이날 총 유효표 99표 중 77표를 쓸어들이며 '50홀런' 박병호(넥센·13표), '유격수 40홀런' 강정호(넥센·7표), '20승' 밴헤켄(넥센·0표), '삼성 통합 4연패의 주역' 밴덴헐크(삼성·2표) 등 경쟁한 후보를 누르고 MVP의 주인공이 됐다.

방출과 현역 입대, 신고 선수 등 굴곡진 야구 인생을 걸어온 서건창은 이종범과 이승엽 두 전설을 넘으며 영광의 트로피를 차지했다.

서건창은 지난 9월13일 고향 그라운드에서 광주일고 선배 김병현을 상대로 안타를 때려내며 자신의 우상이었던 또 다른 광주일고 대선배 이종범의 최다 안타기록을 넘어섰다. 197개로 프로야구 최다안타 기록을 갈아치운 서건창의 위대한 도전은 201개에서 멈췄다.

서건창은 이승엽이 1999년에 만든 최다 득점 기록(128개)도 135개로 늘려놓았다. 최다안타와 득점은 물론 타격왕(0.370)까지 차지하며 3관왕에 등극한 서건창은 MVP 트로피로 시상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2012년 신인왕에서 2014년 MVP까지 세 역사를 쓴 서건창은 "2년 전 이 자리가 많이 떨린다. 오늘은 다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도 떨린다. 지나간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어려운 시기에 봉착했을 때 포기하기 않고 계속 와서 이런 자리에 온 것 같다. 확장시절 야구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모교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수상 소감을 밝혔다.

송정초-중앙중-광주일고를 졸업한 서건창은 2008년 신고선수로 LG에 입단했다. 그러나 1군 단 한 타석에 선 그는 삼진 하나만 남기고 방출됐다.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며 2년의 시간을 쉬어간 그는 이후 모교인 광주일고에서 맘을 흘리며 프로 재진입을 위해 노력했다. 많은 이들의 외면에도 야구의 꿈을 놓지 않은 서건창은 넥센 테스트를 통해 간신히 그라운드로 돌아올 수 있었다.

간절함으로 무장한 서건창은 2012년 넥센 주전 2루수로 자리 잡으며 신고선수 새 신화를 만들었다. 그해 신인왕은 그의 몫이었다. 지난 시즌 발가락 부상에 고전했지만 올 시즌에는 특유의 타격폼으로 최고 스타로 우뚝 섰다.

서건창은 "올 시즌 작은 것 하나부터 실패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으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야구를 했다"며 "백전간두 진일보라는 말처럼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신인왕 타이틀은 NC 내야수 박민우에게 돌아갔다. 박민우는 올 시즌 118경기에 출전해 0.298의 타율로 124안타 87득점 40타점 50도루를 기록, 박해민(삼성)과 조상우(넥센)를 제치고 최우수 신인선수가 됐다. NC는 지난해 투수 이재학에 이어 2년 연속 신인왕을 배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올 프로야구 관중 675만명

역대 세번째...KIA, 41% 늘어 66만명 관람 증가율 1위

올 시즌 프로야구 경기장에 역대 세 번째인 675만4619명의 관중이 다녀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8일 "2014 프로야구 총 입장관중이 675만 4619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페넬트레이스 650만9915명(576경기), 올스타전 1만6004명(1경기), 포스트 시즌 22만8700명(14경기)을 합한 것으로 2012년(753만3408명)과 2011년(715만 4441명)에 이은 역대 3번째에 해당한다.

지난 2008년 1995년 이후 5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는 2010년까지 3년 연속 500만을 넘어선 뒤, 2011년 600만 관중을

돌파했다. 2012년에는 700만 고지까지 넘은 등 4년 연속 600만 관중을 유지하며 국내 최고 인기 프로 스포츠로의 자리를 굳게 했다.

한편 새 안방에서 새 시즌을 맞은 KIA는 성적부진에도 66만3430명의 관중을 유치하며 지난해 관중 47만526명을 뛰어넘었다. 평균관중은 7352명에서 1만366명으로 뛰어오르는 등 관중 증가율(41%) 1위를 기록했다.

2만2000석이 가득 차며 7차례 매진도 이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야구, 세계랭킹 8위

1위 일본·2위 미국·3위 쿠바

한국 야구가 지난해에 이어 국제야구연맹(IBAF) 세계랭킹 8위에 머물렀다.

IBAF가 홈페이지에 발표한 세계랭킹을 보면 18일 기준으로 한국은 340.90점을 받아 작년과 같은 8위에 올랐다. 지난해 한국은 315.98점으로 전년보다 4계단 낮은 8위로 밀려난 바 있다.

일본은 785.18점을 쌓아 미국(766.02점)을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지난해 2위였던 일본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이 랭킹이 도입된 2009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3위와 4위는 쿠바(612.98점)와 대만(605.48점)으로 작년과 같다.

네덜란드(433.50점)와 캐나다(353.52점)가 작년보다 1계단씩 상승해 5위와 6위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5위였던 도미니카 공화국(349.18점)은 7위로 내려갔다. 9위는 푸에르토리코(276.50점), 10위는 베네수엘라(261.00점)다.

이 랭킹은 IBAF가 공인한 대회 성적을 기반으로 부여하는 점수순 순위를 정한다. /연합뉴스

호랑이는 올해도 '구경꾼'

KIA, MVP·신인왕 후보 없고 부문별 수상자 全無

'호랑이 군단'이 이번에도 구경꾼 신세가 됐다. 18일은 프로야구의 전설날이었다. 최우수선수(MVP)·최우수 신인선수 및 부문별 시상식이 열리면서 프로야구의 쟁쟁한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14 시즌을 갈무리했다.

그러나 KIA는 올해도 구경꾼으로 쓸쓸하게 남의 잔치를 지켜보아야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8위를 기록한 KIA는

MVP, 신인왕 후보는 물론 1·2군 각 부문별 수상자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KIA는 각종 시상식의 단골 손님이었지만 2년 연속 후보·수상자 미배출 팀이 됐다. 지난해 끝낸 클리브 시상식도 남의 잔치였다.

2011년은 KIA가 주인공이었다. 에이스 윤석민(롯데 모이)이 평균자책점(2.45)·승률(0.773)·최다승(17)·최다탈삼진(178) 부문 트로피는 물론 MVP 트로피까지 한꺼번에 품으며 2011시즌 시상식의 주인공이 됐다.

2012년에는 톱타자 이용규(한화)가 최다도루(44), 최다득점(86) 타이틀을 가져오며 팀의 자존심을 세웠다. 양현종이 페어플레이상을 받은 2010년에는 그나마 임준혁이 2군 다승왕(15)·평균자책점(2.90) 부문 수상자가 되면서 체면치레를 했다.

하지만 2013·2014시즌 8위 자리에 머문 KIA는 팀 성적은 물론 개인 성적에서도 아쉬움을 남기며 쓸쓸한 스토브리그를 보내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